

<보고서>

#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뉴질랜드의 인문,자연환경

2019년 1월9일- 2월1일

푸른솔 초등학교 (직급) 교사 (성명) 류제열

# 공무 외 국외 자을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뉴질랜드의 인문, 자연환경

2. 연 수 국 : 뉴질랜드

3. 연수일정 : 2019년 1월 9일~ 2월 1 일 (24일간)

4. 연수 중 방문지

로토루아 : Kuirau지열공원, 레드우드 숲, 와이오타푸 지열지대,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통가리로 국립공원 :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릿지 워킹 트랙

왕가누이, 웰링턴 인근 : 두레 힐 엘리베이터, 와이카와 캠프사이트(DOC)

픽턴-넬슨 : 말보로 사운드, Pelorus 다리

아벨타스만 국립공원 : Te Waikoropupu Springs, 와이타푸 캠핑장(DOC), Rawhiti Cave

Westcoast : 파파로아 국립공원, 타이포우타니 국립공원(프란츠요셉 빙하, 폭스 빙하)

와나카 : 키즈부시 캠프사이트(DOC), WasteBuster (재활용센터), 퍼즐링월드

더니든 : 브라이턴 도메인 캠프(DOC), 오타고박물관, 더니든 공공갤러리, 볼드윈거리

블러프, 인버카길 : 스틸링포인트(땅끝) 퀸즈파크 공원

퀸즈타운 : 퀸즈 가든, 애로 타운(민속촌), 카와라우 변지 센터

Fjordland 국립공원 : 밀퍼드사운드, 마리안호수트랙, 키서밋 트랙, 거트루드새들 트랙

웰링턴 : 국립박물관, 웰링턴 박물관, 웰링턴 도서관, 웰링턴 보태닉 가든

5. 주요활동

지열지대, 빙하지대, 피요르드 지대 등 뉴질랜드 특유의 자연환경에 대한 답사 및 시각 자료 수집,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정보 수집

6. 연수의 효과

\* 피요르 지형, 빙하 지형, 오로라에 대한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를 정리함.

\*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체험 여행에 필수인 캠퍼밴 여행 정보를 정리함.

# 〈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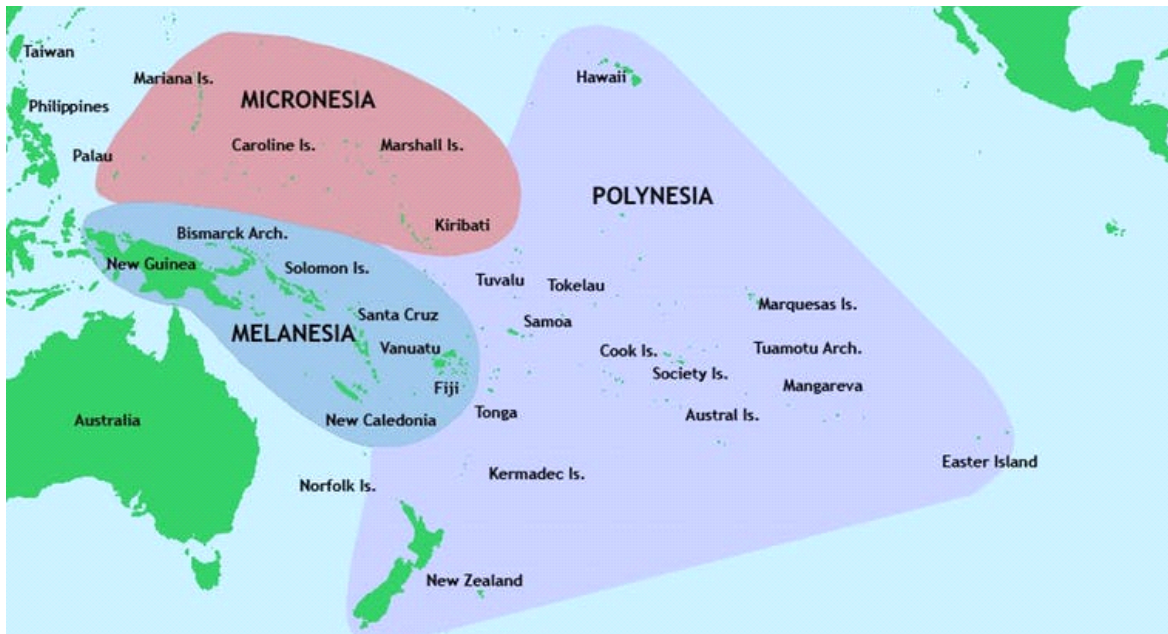
1. 뉴질랜드의 역사 .....	3
최초 발견 이주민 마오리족 .....	3
백인들의 이주 .....	4
와이탕이 조약의 위대함 .....	4
2. 도시 문화 .....	7
뉴질랜드인의 사고 .....	7
3. 자연 환경 투어 .....	9
투어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뉴질랜드의 날씨 .....	9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 .....	12
여행한 대표적 장소 .....	14
4. 캠퍼 밴 / 캠핑장 이용 .....	15
캠퍼밴 안내 페이지 .....	15
캠퍼 밴 계약과 인수 .....	16
캠퍼밴 사고시 처리 방법 .....	17
캠핑장 활용 .....	17
식사 준비 .....	18
캠핑장 평가 .....	19
5. 여행 후기 .....	20

# 1. 뉴질랜드의 역사

## 최초 발견 이주민 마오리족

뉴질랜드를 마오리어로 Ao-tea-roa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폴리네시아 일대 하와이키라고 전해진 섬에서 출발한 마오리 항해사 쿠페가 이 땅을 발견하고 부인과 한 대화에서 유래합니다. 쿠페가 땅을 발견했다고 부인에게 이야기하자 부인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구름이예요(Ao) 하얗고(Tea) 기네요(Roa)”라고 말하며 상륙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쿠페는 그곳으로 가 보았고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를 발견했다고 전해지며 이 아내의 말에서 아오테아로아가 유래했습니다. 북섬은 마우이가 건져 올린 거대한 물고기가 북섬이 되었다는 마오리인의 신화에 따라 테 이카-아-마우이(Te Ika-a-Māui, 마우이의 물고기)라 부릅니다. 남섬은 테 와이-포우나무(Te Wai-pounamu, 녹옥의 장소)나, 테 와카 마우이(Te Waka a Māui, 마우이의 배)라고 합니다.

멋진 땅을 발견한 쿠페는 하와이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알렸고 세월이 흐른 뒤 마오리 후손들은 전설로 전해 오던 아오테아로아를 향해 거대한 카누를 타고 이주했습니다. 마오리의 뛰어난 위치천문학과 천체를 이용한 항법 기술은 디즈니의 영화 모아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아오테아로아라는 부족명을 듣고 참 예쁜 이름이다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언어의 유사성도 나타납니다.

## 백인들의 이주

뉴질랜드의 '질랜드(Zealand)'는 네덜란드 남동부의 '지일란드(Zeeland)'주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덜란드인 항해가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새로운 지일란드라는 의미의 'Nova Zeelandia(Nieuw Zeeland)'라 명명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아벨 타스만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오리족의 거센 저항으로 상륙을 포기했지만 100년이 지난 후 영국인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를 조사하고 이 후 많은 유럽인들이 고래잡이와 바다표범 모피, 목재등 자원을 얻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 와이탕이 조약의 위대함

1840년 2월6일은 바로 영국에서 온 백인들과 원주민인 마오리족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만큼 의미있는 국가 최대의 명절입니다. 두 민족 사이의 약속으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1769년 영국 해군의 제임스 쿡 제독이 이 지역을 다녀간 이래, 뉴질랜드는 당시 최고의 해양자원이던 고래를 쫓는 사냥꾼들의 거점으로 차츰 이름이 알려졌으며 고래잡이들의 뒤를 이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과 일확천금의 꿈을 안은 금광업자들이 몰려들어 서부의 금광 지대가 개척되기 시작했고 그레이마우스 등의 도시는 크게 개발됩니다. 지금도 사금을 채취하는 체험을 하는 곳들이 관광지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프랑스가 이 지역을 탐내고 있다는 첩보까지 날아들자 영국 정부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따라서 호주와 같이 애보리진의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점령과 학살이 뉴질랜드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잡이, 어업, 목축, 금광 발견 등으로 차츰 부를 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40년 윌리엄 허슨 선장이 본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남태평양으로 급파되고 7년 전부터 영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탕이에 머무르던 제임스 버스비의 집에 회담장을 마련하고 마오리 족장들을 불러 모았으나 회담 시작부터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조약에

쓰이는 용어를 서로의 언어로 해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으며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일기도 하다가 마침내 3개 조문으로 된 문서를 최종안으로 채택하고 마오리 족장 45명이 서명합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이 조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는데 8개월간 남섬과 북섬을 돌며 500명이 넘는 마오리 족장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지닌 민족의 일방적인 침탈과 학살은 식민지 개척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왔으나 와이탕이 조약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문서로 된 약속에 따라 두 개의 민족이 결합한 역사의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단순한 조문과 영문본, 마오리어본의 뉘앙스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크게 만든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통치권'을 뜻하는 영어 'Sovereignty'는 마오리어에 같은 단어가 없어서 '카와나탕아(지도자의 권력)'로 대체되었고 또한 마오리어의 '타옹야'는 문화적 유산까지를 포함하는 소유물의 개념인데, 이것은 영어에서 단순한 'Treasure(보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마오리와 백인들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 마오리의 토지와 자원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무수한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4G 무선통신 주파수의 소유권이 뉴질랜드 정부에 있는지, 마오리 부족에게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을 정도이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1975년 '와이탕이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조약의 자구 해석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은 모두 이 재판소를 통해 조정합니다.



▲ 뉴질랜드의 난민 수용 역사 (테 파파 통가레와 박물관)

따라서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겪은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나라가 되며, 어떤 나라보다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난민을 일찍부터 관대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후 난민인 투발루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인종차별은 적은 편이며 공항은 물론 어디에서든 쉽게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오리족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의 지명은 전국 곳곳에 마오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 어보리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마오리들은 그들의 조상과 문화를 자랑스러워 하며 뉴질랜드의 국가대표 럭비 경기에서도 마오리족의 춤을 선수들이 선보입니다. 꾸준한 이민을 통해서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의 마오리 전통 하카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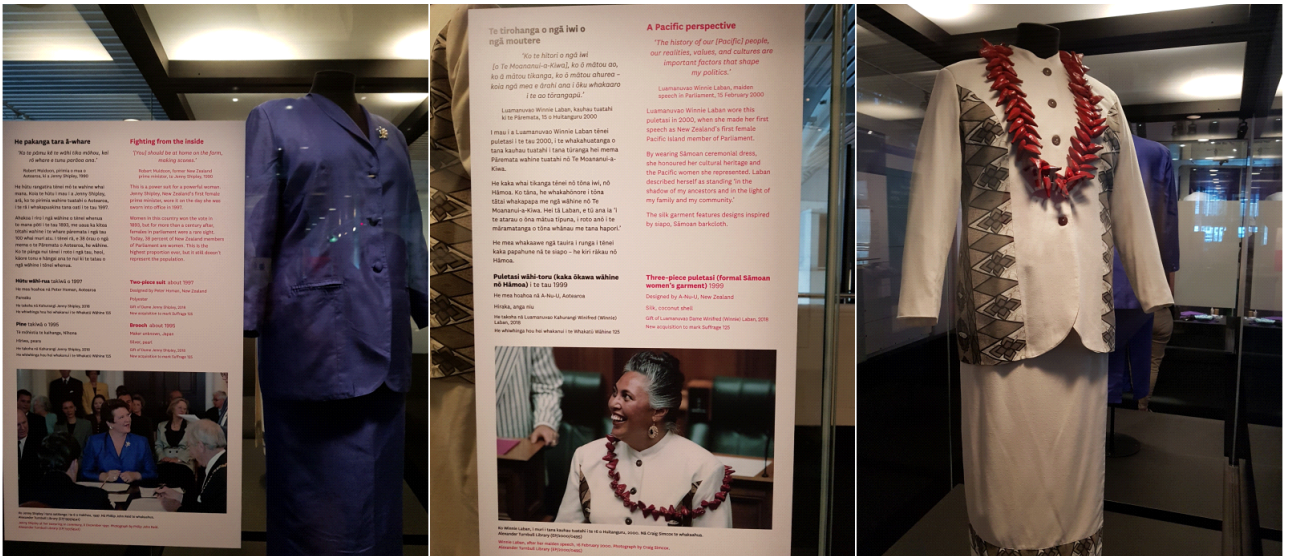
▲ 웰링턴, 중국문화인 용선 축제를 웰링턴 시민들이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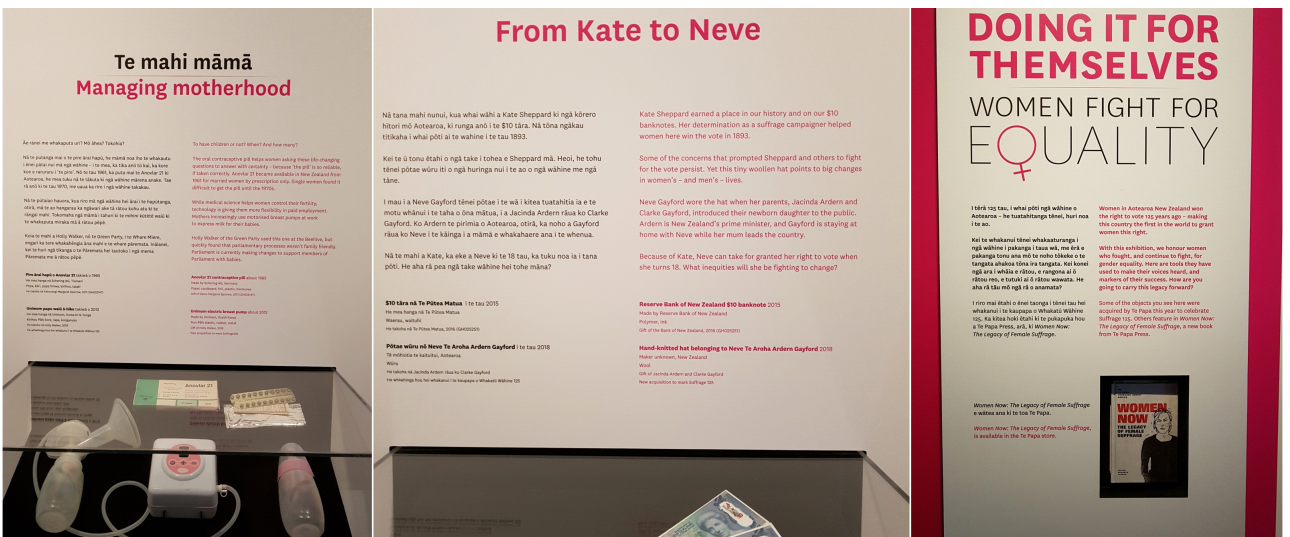
## 2. 도시 문화

### 뉴질랜드인의 사고

다문화에 관대하고 차별이 적은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나라답게 남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일자리의 40% 정도는 여성들이 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기를 데리고 출석하여 업무나 회의를 진행하며 남성들이 엄마없이 아기를 안고 여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국조는 키위, 대표적인 과일도 키위, 뉴질랜드인 스스로도 키위라고 부르며 아기를 돌보는 가정적인 아빠를 키위 남편이라고 합니다.



▲ 97년 최초 여성국회회장의 복장, 2000년 최초 여성 태평양지역의원 사진과 복장이 박물관에 전시됨.



▲ 좌) 여성의 사회활동에 기여한 자동 착유기. 국회에서 사용된 뒤 국회 시설의 모성보호환경이 열악함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함, 중) 1893년 여성 투표권이 쟁취되기 까지 투쟁했던 Kate Sheppard이야기. 우)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과정이 전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



▲ 대형마트 카운터다운에 마련된 어린이용 무료과일코너, 픽턴의 워터프론트 놀이터

어린이를 위한 보호와 배려도 각별합니다. 슈퍼에는 어린이용 공짜 과일이 항상 마련되어 있으며 비지 않게 채웁니다. 드물게 비는 경우 어린이들이 아주 섭섭해 합니다. 그러나 바로 채워 놓습니다. 놀이터는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약간의 모험이 가능하도록 배려합니다. 어른들이 놀고 싶을 만큼 훌륭하고 튼튼합니다.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큰 콘을 들고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는 언제나 붐비고 줄을 서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유지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시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 개방인 경우가 많지만 다른 나라의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빈약한 편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도 평범하며 연어, 쇠고기, 양고기 외에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시에 빵집도 많지 않아 주식으로 할 빵을 구입 할 때 PAK'N SAVE나 Countdown과 같은 대형 마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있고 다양한 빵을 여기서는 먹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짧고 문화가 축적된 것이 적은 상태에서 여러 이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다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흡수되어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방문한 도시는 오클랜드, 로토루아, 웰링턴, 더니든, 인버카길, 퀸즈타운, 웰링턴 등이었는데 오클랜드와 웰링턴, 더니든이 조금 변화할 뿐 그 외 도시들은 무척 한적하고 평범한



풍경이고 단층 건물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도시에서 도로 표지가 합리적이어서 운전하기에 편했고 도로변에 꽃이 많았습니다.

### 3. 자연 환경 투어

#### 투어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뉴질랜드의 날씨

관광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은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당연히 더운 여름을 상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도와 가까운 북섬의 위로 갈 수록 맑고 덥지만 북섬의 아래로 갈수록 수영하기에는 쌀쌀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비가 잦았습니다.

이곳은 전반적으로 서안해양성의 온대기후이나 여름이라 해도 대체로 크게 덥지 않고 지형이 복잡하여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도 지역에 따른 기후차가 상당하여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영국의 날씨와 비슷하며 북섬의 대척점은 스페인이고 남섬의 경우는 프랑스입니다. 더 아래 스튜어트 섬은 아일랜드입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을 사이로 기후 차이가 크며 특히 3,000m가 넘는 산지가 있는 남섬에서 기후 차이가 더욱 큼니다. 남섬의 서부는 전혀 덥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와서 우림이 존재하나 온대성 식물로 된 우림입니다. 알래스카, 칠레와 함께 빙하와 우림이 한 장소에 공존하며 서풍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어 내어 비가 많이 와서 연강수량이 2,000mm 이상이며, 지역에 따라 무려 4,000mm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섬의 동부는 습한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핀 현상, 높새 바람) 연강수량이 대부분 600mm 이하가 되며, 심지어 300mm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평균기온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때때로 뜨거운 북서풍이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기온을 크게 상승시켜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여름에 크게 덥지 않는데 가끔 기온이 35도, 심할 경우 40도를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북섬은 한반도보다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 더 시원한 서안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며 섬의 서쪽에 비가 많고 동쪽에 비가 적지만, 남섬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북섬의 동쪽은 대체로 서쪽보다 덥지만, 심하게 덥지는 않으며 뉴질랜드 대부분 지역은 겨울철에 위도에 비해 기온이 높아, 위도가 높은 남쪽의 도시에서도 겨울에 눈은 많이 오지 않으며, 위도가 낮은 북쪽의 도시에서는 눈은 드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와 특이한 지형 덕분에 쌍무지개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 남위 46도 땅끝마을 블러프에 나타난 쌍무지개.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

뉴질랜드에는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이 강하여 눈에 안 좋으며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오존층의 파괴가 더 심하며 피부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뉴질랜드 거주인은 온몸에 반점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다 자외선 때문이며 뉴질랜드인들의 암 사망률 1위가 피부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백인들은 피부 노출을 좋아합니다.

남섬 여행은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는 캔터베리를 제외한 지역을 다녔습니다. 이 중 픽턴, 넬슨, 남섬 중부 오타고 지방 날씨는 안정적이었지만 웨스트코스트와 사우스랜드 지역은 꽤 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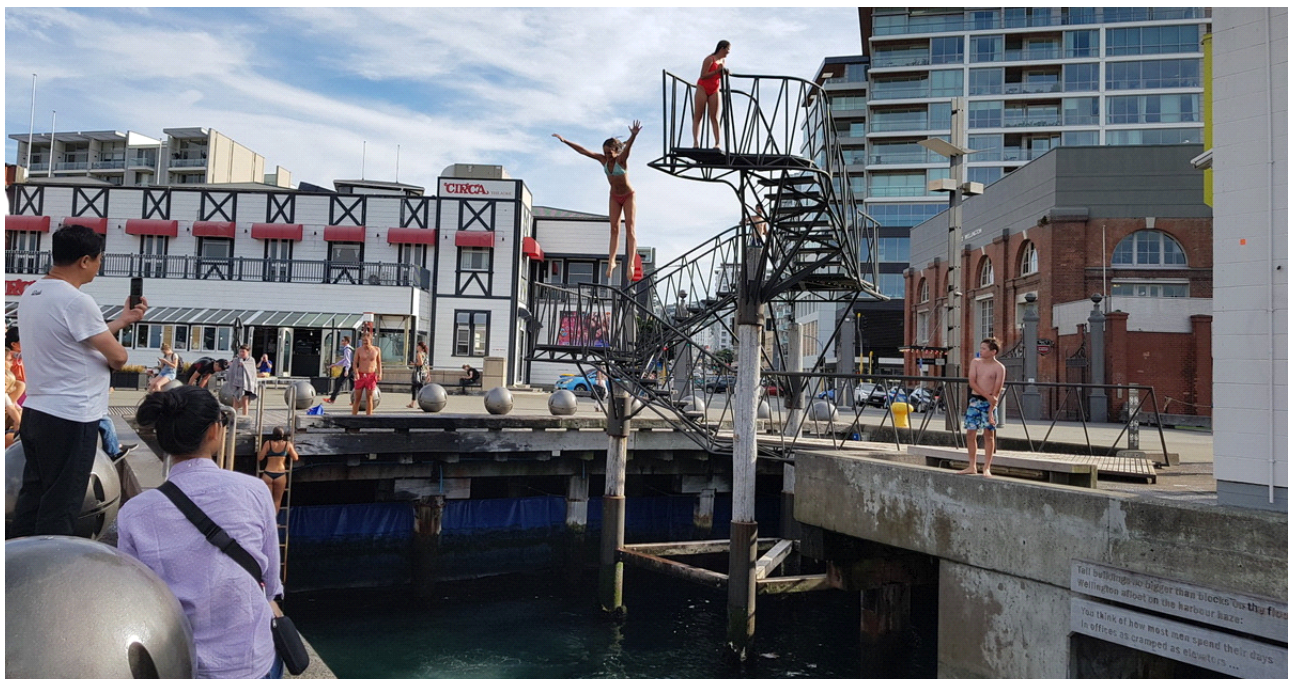
▲ Southern Scenic route 중 젤스톤비치 가는 길 가의 나무들. 저 상태로 자란다.



남섬 사우스랜드 지방의 남쪽 해안은 남극과 가까워 추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여름에도 물에 들어가기 힘들고 바닷가에 오래 머물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무들도 마치 스프레이로 고정 시킨 듯 북쪽을 향하여 휘어져 자라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신기한 광경입니다. 서쪽은 피요르드 국립공원 지역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가도 세찬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웨스트코스트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강하여 서핑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어서 여름에도 바다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한 여름인 1월이지만 돌아다니기 추울 정도의 날씨입니다. 서퍼들도 수트 착용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수트의 가격이 5만원 대 정도로 매우 싸입니다. 여름에 물에 들어가려면 호수도 매우 차갑기 때문에 필수품입니다. 웰링턴의 경우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심한 바람으로 늦가을 수준으로 옷을 입어야 하며 수영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옷을 준비한다면 사계절용이 다 필요하며 잦은 비로 인하여 여름에도 관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는 반팔, 반바지보다 자외선과 추위를 생각한다면 잘 마르는 긴 옷이 더 유용하며 심한 바람으로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온대 기후도 위도, 지형, 섬, 대륙에 따라 가장 다양한 날씨과 기온을 보이므로 철저하게 그 나라의 기후를 공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는 기후 특성 상 사람이 편하게 살 곳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서인지 대체적으로 온순한 듯 합니다.



▲ 웰링턴 워터프론트에 마련된 점핑장. 한 낮에도 기온 자체는 높지 않아 보온용 타월은 필수!



##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

뉴질랜드는 그저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다 보니 거의 곳곳에 험벗은 산과 양과 소를 방목하기 위한 엄청난 초지, 사람이 살기 어려워 보이는 척박한 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목축이외에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풍경입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참 좋은 풍경이나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심지어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이곳에서 뉴질랜드의 심한 습지 파괴로 95%가 상실되어 사람이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여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 Rakatu wetlands 인공 습지. 인공적으로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만들고 생태 복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곳.

그 의문의 답을 웰링턴 국립박물관에서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을 복구하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사람이 살기 전과 이주민 정착이 진행되면서 숲이 파괴되어 초지로 변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숲을 불태워 초지로 만들고 대량의 소와 양을 사육한 바탕 위에 세계 제1위의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의 편견처럼 순수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나라는 아니었던군요.

처참하게 파괴된 자연에 대한 반성일까요? 뉴질랜드는 보전국(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을 두어 국토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엄격하게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이 기본이라 화장실이 국립공원의 높은 산 꼭대기에도 있었고 놀랍게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삼림파괴와 초지로의 변화. 85%를 차지하던 삼림이 첫이주민(마오리) 정착 이후 꾸준히 줄어 55%가 되었고 유럽인들의 이주로 인해 현재 25%만 남아 있다는 결과



▲ 키 서밋 트렉 900m 정상에 설치된 화장실과 DOC직할 캠핑장의 청결한 화장실

DOC 홈페이지에 가면 자연 친화적인 캠핑, 트레킹, 사냥/어로, 문화유산, 관광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곳곳에 DOC가 직접 관리하는 캠핑장(유료, 무료)을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사냥과 어로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한 사람당 허가된 개체의 수량, 크기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냥/어로를 위해 해당

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관광청사이트 [Fishing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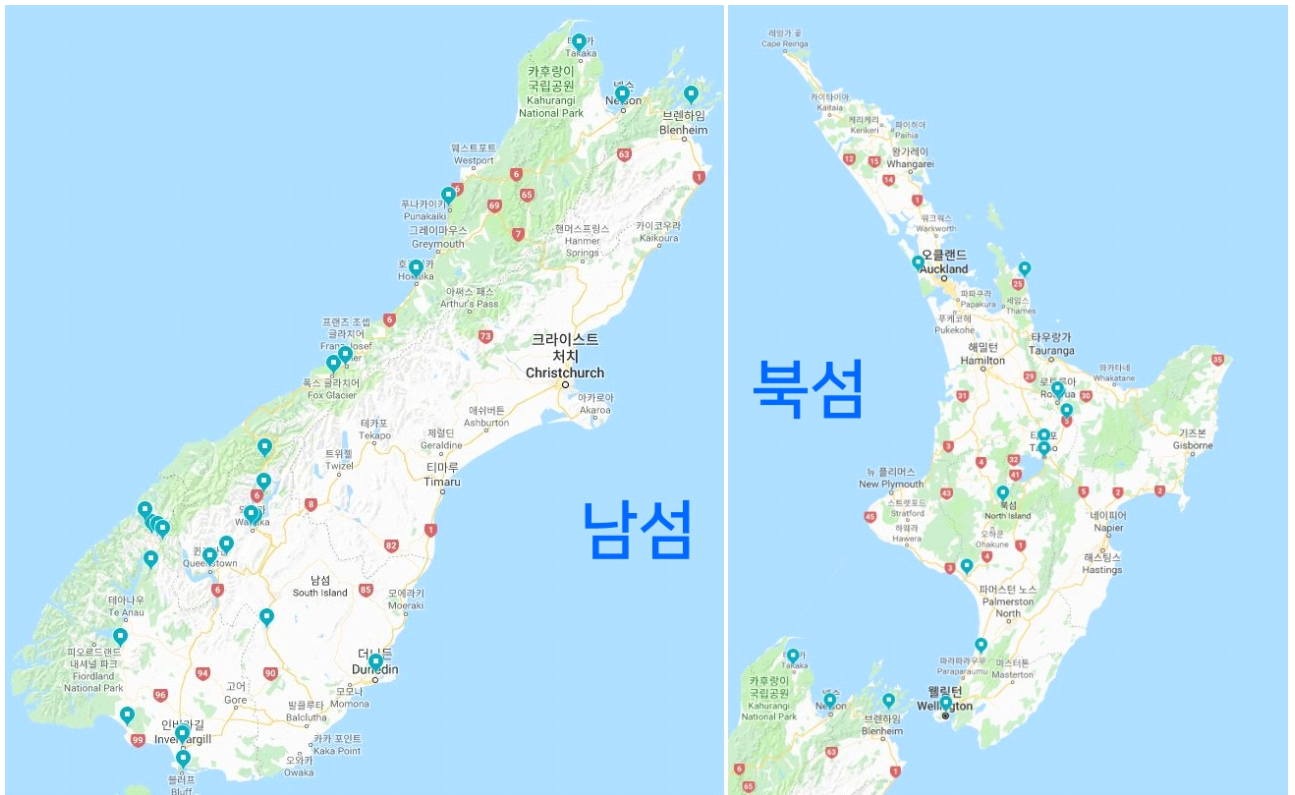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나 캠퍼밴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록 버스 노선 안내는 잘 되어 있지만 대규모 관광지과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온전히 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버스 안내(뉴질랜드 관광청)<https://www.newzealand.com/kr/buscoach-transport/>

## 여행한 대표적 장소

1) 북섬 - 오클랜드 지방의 무리와이 비치(신천옹 관측지) 코로만델 반도의 핫 워터 비치, 로토루아 지열 지대의 핫 스프링, 후카 폭포, 거대한 칼데라 타우포 호수와 통가리로 국립공원, 웰링턴(도시 문화 알아보기)

2) 남섬 - 말보로 사운드 지역 픽턴과 넬슨, 아벨 타즈만 국립공원, 웨스트 코스트 지역의 팬케이크 바위공원, 프란츠 요셉 빙하, 폭스 빙하(기후 변화의 무서움을 실감한 곳), 오타고 지방의 와나카, 더니든, 퀸즈타운, 사우스랜드의 블러프와 인버카길, 밀포드 사운드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정보는 뉴질랜드 관광청, 랭커스 홈페이지, DOC홈페이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 \* 뉴질랜드 관광청 <https://www.newzealand.com/kr/> 여행 기본개념을 세울 수 있는 곳.
- \* 랭커스 <https://www.rankers.co.nz/> 캠핑장, 액티비티, 주유소, 슈퍼마켓 등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홈페이지. 앱으로도 나와 있어 여행 중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 \* 보전국 홈페이지 <https://www.doc.govt.nz/> (자연,문화유산 보전국) - 뉴질랜드 자연 친화 여행의 핵심 사이트. 유명 트레킹 루트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DOC맵 <http://maps.doc.govt.nz/mapviewer/index.html?viewer=docmaps>

## 4. 캠퍼 밴 / 캠핑장 이용

### 캠퍼밴 안내 페이지

랭커스 캠퍼밴 안내 <https://www.rankers.co.nz/tags/motorhomes-campervans-rv>

뉴질랜드 관광청 캠퍼밴 안내 <https://www.newzealand.com/kr/motorhomes/>

주시 홈페이지 (우리가 이용한 곳) <https://www.jucy.co.nz/>

캠퍼밴은 뉴질랜드 여행의 거의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표적인 관광지 중심으로 여행하게 되는데 뉴질랜드는 관광지 사이사이의 환상적인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서 식사하고 저렴하게 장을 보아 잘 먹을 수 있다는 장점. 한 마디로 집을 가지고 다니는 엄청난 편리함이 있습니다. 샤워실까지 달린 모터홈 차량은 커서 부담이 되지만 2인승 정도의 캠퍼 밴 은 우리나라의 스타렉스와 같거나 작기 때문에 차의 높이만 조심하면 운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큼니다.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여서 방향지시와 와이퍼가 반대이며 왼손으로 기어를 조작한다는 점이 어렵고, 좌회전이 기본이며 우회전 때 기다려야 하는 등 한국에서 익숙한 운전자일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섬의 경우 차폭에 비해 도로가 비교적 좁아 트레일러나 모터홈 등 대형 차량들이 반대편으로 지나가게 되면 위험스럽고 긴 운전시간 동안 인가가 드문데다 도로가 좁아 차가 약간만 벗어나면 차선에 설치된 홈 때문에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만일 운전을 혼자 한다면 꽤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무엇보다 피곤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후 장을 보고 캠핑장에 도착하여 음식 만들고 샤워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피곤하여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비용이 꽤 비쌉니다. 비교적 작고 경제적이고 다소 불편한 차량을 렌트했는데도 20일간 총 렌트비용이 4444달러 (337만원)이나 들었고 캠핑장 비용이 보통 하루에 40달러 (20달러\*2명)입니다. 무료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캠핑장 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샤워, 설거지, 화장실 이용 등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경우 총 21박 중 호텔 2박(201달러), 무료 캠핑장 3곳, 유료캠핑장 16곳 645달러 총 숙박비 846달러(64만원)였습니다. 차량 비용과 합하면 렌트+숙박비만 4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 지역에 여유롭게 있자니 비용 생각이 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캠퍼밴 대여 비용이 총비용/대여일 하면 일당 18만원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시내 취사가 가능한 조금 편리한 차량을 대여하면 비용이 25만원 대로 확 올라갑니다.

장단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캠퍼밴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 캠퍼 밴 계약과 인수

한국에서 몇 달 전에 주시 홈페이지(<https://www.jucy.co.nz/>)를 이용해 캠퍼밴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예약했습니다.

차량 : 팝업 텐트가 장착된 4인용 콤파스 차량(도요타 하이에이스,4.7m) \* 20일 2900달러

출/입 : 오클랜드공항 8시 반출, 퀸즈타운 공항 12시 반납 (편도 추가 요금 350달러)

보험료 20일 600달러, 추가 운전자 보험료 40달러 (2\*20)

인터아일랜드 페리비 (승객 144달러, 차량 210달러)

신용카드 지불 수수료 2% 17달러

예약을 마치면 총 비용의 20%를 선납하여 계약하고 나머지 80%는 대여일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공중전화에서 렌터카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전화번호를 눌러 도착사실을 알리면 셔틀을 탈 수 있는데 구태여 알리지 않더라도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탑승 후 자기 이름을 대면 됩니다. 렌터카 오피스에서 자신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를 살펴 계약 서류에 기록하고 인도 받습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모르는 점이 있으면 꼼꼼하게 질문하고, 차량에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서류에 기록하고 문제 부분을 미리 사진 찍어 두어야 합니다.

## 캠퍼밴 사고시 처리 방법

캠퍼밴 계약 시 보험 옵션이 3가지 있습니다. 1)스트레스프리(완전보상, 30달러/일) 2)제한적 보상 (1500달러까지만 보상, 20달러/일) 3)리스크 테이커 (무보상, 사고시 사고비용과 소요기간만큼 일 대여료 지불해야 함)입니다. 저희는 1)스트레스 프리(종합보험)를 들었습니다.

운행 중 후진하다가 주차된 트레일러에 후미를 긁혀 15cm정도의 깊은 흠집이 났습니다. 트레일러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주행하다 길 가에 설치된 유료 공중전화(페이폰)에서 업체(주시) 무료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장소와 사고 상태를 말했는데 사고 상대방이 딱히 없고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접수비용 75달러만 지불하고 캠퍼밴 반납할 때 반납 오피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끝냈습니다. 서류 내용이 복잡하여 30여분 이상 걸리긴 했지만 종합보험을 든 상태라서 서류작성만으로 반납 절차를 끝냈습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라면 사고 접수 때부터 조금 더 성가실 수 있겠지요.

## 캠핑장 활용

뉴질랜드 관광청에 필수 앱으로 소개된 NZ Rankers 앱 설치는 캠퍼밴 여행에 필수입니다. 전국의 무료/유료 캠핑장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고 사용자의 리뷰를 보고 캠핑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와 달리 흔치 않은 주유소 위치, 슈퍼마켓 위치, 할 만한 액티비티 안내 등 앱 속에 뉴질랜드 지도를 짝 펼쳐서 필요 정보들을 쓱쓱 보여줍니다.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고 나면 GPS가 지원되므로 전화가 안되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활용한 캠핑장의 소감을 씁니다.

### 1) 무료캠핑장

\* 장점: 가장 풍광이 좋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볼 것이 많고 자연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점잖고 일찍 잔다. 조용하다. 생각보다 쾌적하다. 가장 단순하게 음식을 해 먹고 움직이면서 여유 시간이 많다. 산책이나 자연을 접할 시간이 충분하다. DOC 직할 캠핑장이 좋다. (NZ랭커 앱에 DOC managed라고 표시되어 있음) 주로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 마련됨. 화장실 /식수 /쉼터 정도 제공된다.

\* 단점 : 빨리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한번 들어갔다가 차를 이동하면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 화장실의 쾌적성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DOC직영 캠핑장은 어느정도 화장실이 깨끗하다) 씻을

곳이 없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초월할 만한 정점들이 너무 많다. 풍광과 주변이 아주 아름답다.

## 2) 1~10달러 캠핑장

기본적인 화장실, 쉼터 정도만 마련되어 있다. 무료 캠핑장과 시설이 비슷하며 꽤 멋진 곳에 있다. 단점으로는 찾아가기 위하여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에 상응할 만큼 입지가 아름답다.

3) 11~20달러 캠핑장 - DOC캠핑장과 사설 캠핑장으로 나뉜다. 사설은 대부분 주방, 화장실, 샤워 시설이 있다. 깨끗하고 좋다. 주방을 차지할 시간은 잘 살펴 움직여야 한다. 단점으로는 먹고 씻고 자는데 신경을 쓰다가 시간이 다 간다. 편의성이 좋으나 주변 풍광은 별로다. 도시 주변부에 위치해 있거나 잔디 위에 선만 그어져 있으면 별로다.

4) 21~30달러 캠핑장 - 고급 캠핑장으로 잘 정비된 샤워, 주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가족이나 어린이를 위한 부대시설이 있는 곳도 있다. 캠핑장의 호텔급. 생각하기 나름으로 나에게 필요없는 시설 비용까지 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캠핑장이든지 화장실은 마련되어 있고, 인당 15달러 정도부터 시작하는 사설 캠핑장에는 샤워실까지 있으니 샤워나 화장실까지 포함되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터홈 차량은 사실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싱크시설과 간이 화장실을 구비해 “Self Contained” 등급을 획득한 차량이라면 어떤 캠핑장이든지 출입이 가능하므로 숙박, 취사의 기본적인 활동 중심으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식사 준비

마트에서구입하는 먹을 만한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용 빵 (카운트다운 마트의 타이거 브레드 최고!)
- \* 맥주(뉴질랜드 지역 IPA 맥주가 좋고 저렴함. 6캔에 12달러)
- \* 포도주(12달러 선에서 구입하면 맛있음. 특히 남섬의 픽턴,넬슨 지역 화이트와인 추천)
- \* 시더 (사과 와인. 1.2리터 병당 10달러 정도)
- \* 과일 (체리, 살구, 자두, 꿀 등 - 신선하고 맛있음)
- \* 해산물(생연어는 3\$/100g 그린 입 홍합은 5\$/kg)
- \* 양고기, 소고기, 닭, 양념된 고기류 (염도를 잘 살펴서 사야 하는데 라벨 중의 내용량 부분에 Sodium이 500~600mg 이면 알맞은 염도입니다.)

## 캠핑장 평가

### (1) 최고 캠핑장

Muriwai Beach Campground (오클랜드 서해안)

모든 시설 최고, 바다 입지 가까이 있음, 캠핑사이트의 우수함, 편안하고 쾌적함),

Bluff Campground (남섬 사우스랜드 Bluff)

주방 전망이 최고 - 변화무쌍한 날씨를 주방에서 따뜻하게 감상할 수 있음, 고즈넉하고 편안함,

Kidds Bush Reserve Campsite (남섬 Hawea호수 앞.)\_ 풍경이 최고, 사람들의 일상을 감상,

화장실 청결하며 시설 좋음, 13달러.

Last Light (Tuatapere) 시설 캠핑장인데 시설 대비 최저가 14달러,

Brighton Domain (더니든 주변) 풍경이 최고이며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시원하고 멋짐, 무료.

### (2) 최악 캠핑장

Hahei Holiday Resort (코로만델 반도 카테드랄 코브 옆) 인당 65\$ 최고액, 하지만 현실은

난민촌.

### (3) 흐뭇한 로컬 캠핑장

Last light (남섬 사우스랜드의 Touatapere) 가격은 14\$, 저렴하고 주인이 친절함. 지역의 맛집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캠핑사이트가 아름다움, 옛스런 주방은 규모도 크고 쾌적하다. 넓은

벌판에서 감상하는 한밤의 별자리는 최고, 직접 재배한 야채를 판매함.

### (4) 가격 대비 별로인 캠핑장 - 퀸즈타운 애로우 타운 캠핑장

인당 25\$를 받고 샤워비가 따로라니.. 샤워기에 1달러를 넣어야 뜨거운 물이 나옴. 평범한 잔디

위 캠핑사이트였고 주방이 좁았다, 게다가 여름철 해 진 직후 10시면 주방이 문을 닫으니

사용하기에 불편했다.



## 5. 여행 후기

뉴질랜드는 도시 이외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작은 타운을 지나면 계속 초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드넓은 초지에 양과 소가 한가로이 풀 뜯는 풍경은 상상 속의 뉴질랜드 이미지와 꼭 같았습니다. 밀포드 사운드에서 본 압도적인 자연 풍광과 규모는 왜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서 눈물겹게 자연 그대로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디든 깨끗한 화장실, 운전하기 좁은 도로, 무료 캠핑장의 훌륭한 위치와 잘 정비된 유지 상태가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달리 해산물(전복, 홍합 등등)은 바닷가에 널려있지 않았지만 도시 해변에서 오히려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보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순박하고 무리 없이 친절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팁이 없고 인종적 편견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캠퍼밴 여행을 통해서도 현지인들의 삶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만나는 캠퍼들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관광지를 벗어나야 현지인들의 생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 생각 외로 날씨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심했는데 심지어 하루에 4계절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여행이 이렇다면 다른 계절에는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